

OHEANA



www.pccc.wmu.edu Issu Date Nov 2023



Table Of
CONTENTS



04_ CHRISTIAN EDUCATION
COLUMN

기독교교육 칼럼

06_ CHRISTIAN COACHING
COLUMN FOR PARENT-
ING AND CAREGIVING

크리스천 코칭 칼럼

08_ MY UTMOST FOR HIS
HIGHEST

부모가 자녀에게 한글로 읽어주는 묵상의 글

10_ PRAYER
FOR CHILDREN

자녀와 가족을 위한 기도문

12_ KOREAN CULTURE,
AMERICAN CULTURE,
AND GLOBAL CULTURE

한국문화, 미국문화, 세계문화.

I4_

PRE-WORSHIP ACTIVITIES

가정예배 시작 전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I6_

WEEKLY BULLETIN OF FAMILY WORSHIP

가정예배 순서지(9월, 10월)

Pacific Center for Culture and Education

PCCE는 성경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정신을 교육과 문화를 통해 전파하고 실현하는 기관으로 릴리재단(Lilly Endowment)과 World Mission University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PCCE는 미국내 한인교회와 한인가정의 기독교교육 그리고 1.5세와 2세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예배와 세대간 예배의 보급을 통해 다음 세대를 거룩한 그릇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기독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리서치와 콘텐츠를 제공하며 크리스천 부모교육도 실시합니다.



각인(刻印)

신 앙교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교육 하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가 그것도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 할까요? 정작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일방적으로 교회에만 의탁하는 것에 크나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앙교육의 터전은 바로 부모이고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신앙교육의 가장 큰 장은 부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앙교육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격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데, 유기적이란 것은 어린 자녀는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의지와 삶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성품 안에 자녀의 미래의 성품이 들어있고, 부모의 모든 미덕과 신앙과 기도와 약속들이 흘러서 그 자녀의 것이 됩니다.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가 그런 것이고, 유아세례의 의미도 이러한 부모-자녀 간의 유기적 관계성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훈계나 지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를 교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의해 실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지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이면 하나님 아버지도 늘 자신을 책망하고 별주는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고 자라간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미지화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각인현상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각인된대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이 각인현상은 초등학교 연령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때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 누가 뭐라해도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존재로 각인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남에게 늘 베푸는 사람



이면 자녀도 그러한 삶이 각인되어 부모와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반대로 부모가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 자녀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됩니다. 더구나 부모가 언행에 있어 공격성을 보이거나 폭력성이 있으면 이 각인현상이 그대로 아이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각인이라는 단어는 '새기다' '도장을 찍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부모의 태도나 행동이 이미지가 되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바로 그것은 자녀들의 인격과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부모야 말로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영향을 통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기초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월드미션대학교
최윤정 교수



로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이제 좋은이는 정말 큰일났다! 이제 좋은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뒤쳐지는 바보가 되어 버릴 것이다" 하는 눈으로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보다 더 확실한 선생님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영락없이 따라 합니다. 말하는 것, 버릇, 생각까지도 부모와 닮은꼴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한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은 다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 부모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유치원에서 별 것을 다 배운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웃음이 넘치는 가정, 언제나 사랑과 진실과 이해와 격려와 감사가 있는 부모,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보는 부모, 겸손히 섬기고 나누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자란 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부는 좋은이를 학원에 보내 셈과 한글과 영어와 무슨 영재교육같은 것을 배우게 하는 대신에 집에서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 이기는 하겠으나 저희 부부는 한번 애를 써 보려고 합니다.

햇별같은 이야기
최용우

어느 택시운전 기사님은 아이들을 유치원이고 학원이고 일절 안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의 교육, 오늘의 부모들이나 오늘의 세상은 오로지 외적 물적 양적 '발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그런 세상이 싫어서 아이들을 일절 학원에 안 보냈다고 합니다.

집앞까지 유치원차가 오니까 아이는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갔다가 끝나면 또 차가 실어다 주니 집앞에서 내려 집으로 쪽 들어갑니다. 혼자서는 길을 걸을 줄도 모르고, 혼자서는 운동화 끈도 매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영어 단어를 말하고 숫자를 세고 한글을 줄줄 읽는다고 마치 천재라도 난 것처럼 법석을 떠는 부모들이 그렇게도 가소롭기 그지없다 하십니다.

큰딸아이가 벌써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보내지 않기



통하는 부모

부 모와 자녀 모두 잘 소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대화 후에 남는 건 상처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만난 청소년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맨날 밥 먹었는지만 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었냐는 말로 표현되는 엄마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전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이렇듯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통하게 됩니다. 아니면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도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움 없이 커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그러나 통하는 부모가 되려면 그러한 불안, 걱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 자신의 불안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초등학생은 잔소리는 기분나쁜 것이고, 조언은 더 기분나쁜 거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통하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줄 공간이 있는지부터 살펴



야 합니다.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부정적 감정, 생각들을 심호흡하며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하는 말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긍정적 순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통하는 부모로서의 마음밭이 만들어집니다.

통하는 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생각할 시간을 기다려줍니다. 만일 아이가 답을 찾지 못했을 때는 또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때 소통은 잘 이루어집니다. 자녀와 통하는 가정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눈만 마주쳐도 웃고, 허튼 소리라도 받아주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어주고 대화하며 정말 최선의 것을 함께 찾아가고,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평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통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미 국의 8대 대통령 마틴 반 뷰렌(Martin Van Buren)은 자신이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를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실수했을 때에 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이나 저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정직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일러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분이 언짢을 때에 저의 입술을 지켜 주시고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허락할 수 있도록 저에게 참을성을 주시고 그들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

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본받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마틴 반 뷰렌은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기에 앞서 자신이 먼저 자녀의 모범이 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는 '양육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길러가면서 부모 또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녀와 소통하며 훌륭하게 양육할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My Utmost for His Highest

구름과 흑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놀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시 97장 2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구름과 흑암이 주님을 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마치 흑암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진부한 종교 형식에서 발을 떼 기억이 없고 형식적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린 경험이 없다면, 또한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던 친숙함을 떨쳐버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존전에 서 있었던 적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앙 생활에 번덕이 심하고 종교적 분위기에 익숙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깨달음으로 놀라운 환희와 자유함을 맛본 후에는 그분을 깊이 알기 원하지만 정작 그때부터 깊은 흑암이 물려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처음에는 구름과 흑암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께서 우리의 특별 한 상황에서 그 말씀들을 다시 하실 때 갑자기 말씀들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것 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언제나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요한복음 13장 37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왜 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백 기간을 허락하시면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기간은 당신에게 성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성화 이후에 봉사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 달리지 마십시오. 만일 아주 작은 의심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멈추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기도 하고 어떤 사업 관계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인도하심 없이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복구하는 데 많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만하게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마음 상함이나 후회가 전혀 없도록, 주께서 친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험이 어디서 올 것이라고 미리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요13:37). 베드로의 선언은 정직한 것이었지만 무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 . .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요 13:38).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훨씬 더 잘 아시기에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도 몰랐고 자신의 능력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서 얼마든지 인간적인 충성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력과 환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헌신은 어떤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Prayer for Children

예배로 하나되는 가정

주님, 우리 가족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의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하소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길지라도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예배 시간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송케 하소서.

우리의 삶과 앞길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께 제단을 쌓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되게 하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을 저주하는 자의 손 앞에서 주님 간섭하소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시련이 오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돌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서원제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와 같이 가정예배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잇게 하시고, 나 000의 하나님, 그리고 000의 하나님, 000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6-7)

Korean Traditional Culture

상부상조의 전통 '두레'

우리의 전통문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가운데 두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레는 농촌 마을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만든 공동노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씨족공동 사회에 기원을 둔 두레는 모내기, 김매기 등 일시적이고 많은 사람의 품이 요구되는 농경에 마을의 성인남자 전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강제성을 띤 조직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인 행수를 비롯한 임원이 있어서 조직과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했고, 일의 시작과 진행에 농약이 동원되었으며 일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노고를 잊고 결속을 다짐하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두레에 의한 공동노동은 모내기, 물대기, 김매기, 벼베기, 타작 등 경작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많은 품이 요구되는 모내기와 김매기에는 거의 반드시 두레가 동원되었습니다.

두레는 엄격한 규율 아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작업에 앞서 수총각이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썼거나 용을 그린 농기(깃발)를 논두렁에 세우고 난 뒤, 나팔을 신호로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업과정뿐만 아니라 식에서도 일사불란한 단체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를 끝마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아직 식사 중인데 먼저 눕는다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작업시간은 행수(우두머리)가 정하는데, 시계가 없을 때는 구멍 뚫린 초롱에 물을 채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두레를 운영하는 것과 그 기능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공동회연(共同會宴)', 즉 '공동잔치'였습니다. 공동회연에서는 굿이나 놀이 등을 하였습니다. 대체로 김매기를 마친 뒤 공동작업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먹고 농약에 맞추어 여러 가지 연희를 곁들여 뛰고 놀면서 1년의 노고를 잊고 결속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레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농약입니다. 농약 있는 두레와 농약이 없는 두레가 있는데, 농약 있는 두레의 경우 작업을 하러 갈 때 농기를 앞세우고 장구, 팽과리, 북을 풍물재비들이 치며 나아갑니다.



김매 때의 장구재비 혼자만 소리(노래)를 하면서 흥겹게 풍물을 잡습니다. 이처럼 농약은 노동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고 더욱 힘을 내게 하며 협동심을 북돋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토지의 사유화의 발달과 도시화 등으로 본래 모습의 두레는 사라지고 일부 변형적인 모습으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상부상조 전통과 정신은 현대사회 공동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문화와 상부상조의 정신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전통 놀이 '제기차기'

제기차기는 제기를 가지고 발로 차는 놀이입니다. 제기는 엽전이나 쇠붙이를 종이나 헝겊에 짠 다음 끝을 여러 갈래로 늘여 너풀거리게 한 장난감입니다. 주로 겨울철에 아이들이 밖에서 즐깁니다.

제기차기는 옛날의 공차기인 '축국'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더기'라고 했는데, 이 말이 변하여 '제기'가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쇠붙이에 플라스틱을 합쳐 만든 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기차기 : 이억영 (출처 : 한국민속대백과사전)



제기차기는 제기를 발로 차는 전통놀이로 주로 겨울에서 정초에 걸쳐 즐겨왔다. 제기는 엽전이나 쇠붙이를 얇은 한지로 싸고 종이의 두 끝을 한 구멍의 같은 방향으로 꿰어서 그 끝을 갈래갈래 찢어서 만든다. 헝겊에 흙이나 돌을 싸서 잡아매고 꿩의 꼬지깃을 꽂아 만들기도 했다. 제기는 고대의 공차기인 축국에서 비롯된 놀이다. 제기 또는 제기차기라는 말도 축국을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원래 공을 차는 축국을 조선 초기에는 '더기'라고 했다가 18세기 이후 '더기'를 거쳐 '제기'로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놀이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을 통해, 한지, 깃털, 풀리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제기를 재현한 현대화 콘텐츠를 개발하였습니다.

놀이 방법

제기를 띄우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반복해서 발로 찬다.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제기가 바닥에 닿게 되면 상대방에게 차례가 넘어가며, 한 번에 더 많은 개수를 찬 사람이 승리한다.

제기 멀리 차기 놀이는 상대방이 제기를 던져주면 받아서 차고 누가 더 멀리 차는지를 겨루는 놀이다.

외발 차기



한 발은 땅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 발로만 찬다.

양발 차기



양쪽 발로 한 발씩 한 발씩 번갈아 찬다.

뒷발 차기



발의 방향을 뒤로 가게 하여 찬다.

제기 멀리 차기



상대편이 제기를 던져주면 받아서 차고 누가 더 멀리 차는지를 겨룬다.



03. 레이저 빔 장벽 통과하기

준비물 : 붉은색 털실(많이), 스톱워치, 테이프

1. 집 안의 복도나 통로를 찾으세요. 마땅한 통로가 없다면 의자나 소파, 테이블 등을 양쪽으로 나란히 배치해 통로를 만들 수 있어요.
2. 털실을 자유롭게 거미줄처럼 양쪽을 왕복해가며 타이트하게 붙이되 몸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으로 만드세요.
3. 다 만들었으면 레이저 빔을 건드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지 도전해 보세요.
4. 레이저 빔을 건드린 사람은 재도전해 보세요.
5. 누가 가장 빨리 통과했는지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보세요.

레이저 빔에 맞는 사람이 죽게 되듯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그렇지만 매번 동물을 희생시켜야 했으며 그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죄 용서의 방법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이었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열렸어요. 마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레이저빔 장벽이 다 사라진 것 같이 말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04. 주의 이름 부르기 윷놀이

준비물 : 윷, 말판, 말(1~4개)

1. 게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로마서 10장 13절을 암송하세요.
2. 말판 곳곳에 '죄 항목이 쓰인 수렁'을 정해 주세요. 죄의 경중에 따라 뒤로 한 칸 또는 여러 칸 물러가기로 설정해 주세요.
3. 말판에 두 군데 정도의 '예수님' 자리를 정해주세요. 말이 예수님 자리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하나, 둘, 셋'을 외치세요.
4. '하나, 둘, 셋'을 외치자마자 말의 주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을 외치세요. 그러면 말들은 천국(HOME)으로 단번에 들어가요. (만약 외치지 못한다면 기회를 잃게 돼요.)



여러분이 윷놀이를 했을 때에는 '예수님' 찬스가 아니더라도 어렵게 HOME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천국)께 나아갈 수 없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사를 통해 죄용서를 받아 거룩해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도 했었죠.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죄용서와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지요. 자, 모두 함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며 가정예배로 나아갑시다.

01.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요

기도 |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세요.

말씀 | 잠언 11:24~26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사람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소유를 주실 때 그것이 그분 뜻대로 쓰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야 해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워 주세요.

나눔 | 1.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요?(25절)
2.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무엇으로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필요한 사람에게 소유를 나누고 베풀 수 있길 원해요. 무엇이든 저만을 위해 쓰려고 움켜쥐지 않도록 제 마음을 넓혀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2. 지혜롭게 말해요

기도 |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게 해 주세요.

말씀 | 잠언 15:1~2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말은 관계를 나쁘게 하기도 하고, 화난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해요.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나눔 | 1.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어리석은) 사람의 언어생활은 어떻게 다른가요?(2절)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2. 내가 했던 말실수를 생각해 보고,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언어 습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기도 | 하나님, 말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3. 교만한 마음을 버려요

기도 |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저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세요.

말씀 | 잠언 18:12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교만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이에요. 교만은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해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어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 나눔** | 1.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12절)
2. 내가 교만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고, 그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 자신을 높이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망하는 길로 이끄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늘 의지하며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4.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 |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말씀 들을 때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예배드릴 때 저희 안에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말씀 | 잠언 22:4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물(부)과 영광(명예)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눔 | 1.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4절) 그런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2.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

.....

.....

기도 |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죄인인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실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5.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 |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 골로새서 1:15~17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권세는 모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서 났어요. 또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예요.

나눔 | 1.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창조되었나요?(16절)

2.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안다면, 세상을 보는 나의 시각과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나눔 |

.....

.....

.....

기도 | 창조주이신 예수님! 모든 힘과 권력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 주세요.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Storytelling

가족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6.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삶

기도 |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부어 주세요.

말씀 | 골로새서 3:1~4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죄인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또 죄를 용서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것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나눔 | 1. 하나님의 사람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4절)

2. 내 삶에서 버려야 할 '땅에 있는 것'과 생각해야 할 '위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나눔 |

.....

.....

.....

기도 |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죄의 습관을 따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게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7.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기도 |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저희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 잠언 23:17~18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되고 일도 잘 풀리는 듯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그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해요. 하나님 자녀의 미래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 나눔** | 1. 하나님 자녀가 마음을 쓰고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17절)
2. 어떤 사람을 볼 때 부러움을 느끼나요? 부러움을 극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 _____

기도 | 하나님! 저희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8.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기도 | 저희와 만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 주세요.

말씀 | 요한일서 4:9~10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 주심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어요.

나눔 | 1.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 주셨나요?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요?(9절)

2.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 이웃, 친구 등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눔 |

.....

.....

.....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저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때,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09. 하나님의 사람이 구할 것

기도 |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 저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말씀 | 잠언 30:7~9을 함께 읽습니다.

본문 이해 아굴은 자기 삶에 허영과 거짓이 없게 하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는 언제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까 봐 두려웠던 아굴은,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나눔 | 1. 아굴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7~8절) 그 이유도 함께 나누어 보세요(9절).

2. 올 한 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많이 드렸나요? 아굴의 기도를 생각하며, 2024년에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할 것 두 가지를 정해 보세요.

나눔 |

기도 |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해 주세요. 제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해 주시고,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QR코드로 '가정예배 활용법', '인도자용 지침서', '가족 미션'을 확인하세요.

P : (213) 388-1000
E : pcce@mail.com
w : www.pcce.wmu.edu

A : 500 Shatto Plac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20

